

20세기 현대복식에 나타난 표현주의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채금석·양숙희

目 次

I. 서론	(3) 란제리 룩(lingerie Look)
II. 표현주의의 예술세계	2. 구조주의적 의상
1. 직관적 표현주의	(1) 기하학적 형태
2. 입체파적 표현주의	(2) 역동적 색채
3. 환상적 표현주의	(3) 팔라주 기법
III. 현대복식에 나타난 표현주의	IV. 결 론
1. 개혁의상	참고문헌
(1) 가르송느룩(Gar onne Look)	ABSTRACT
(2)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	

I. 서론

1. 연구 의의 및 목적

인간 정신의 가치 변화에 따라 예술의 표현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해 왔다. 허버트 리드(Herbert Read)는 이러한 관점에서 '표현'이라는 단어는 근대미술의 중요한 단어로서 이것은 인간 내면의 감정을 외부에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지각하거나 현재하는 기초적 방식의 하나¹⁾라고 하였다. 따라서 '예술이 곧 표현'이라는 생각은 현대 예술가들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창조 활동의 출발점으로서 우

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표현주의'²⁾라는 용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다 광의적 의미의 용어로 받아들여졌으며, 표현주의의 양식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는 미술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연극, 무대미술, 무용, 영화, 건축 등에서도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

미술가나 복식디자이너는 언어적 개념의 중개 없이 사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다. 복식은 건축, 음악, 미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시대를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며, 복식의 표현은 결국 인간을 주체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1) Herbert Read, 「The Meaning of Art」, London : Faber & Faber, 1951, P.222.
2) Dietmar Elger, 「Expressionism」, K In : Benedikt Taschen Verlag, 1991, P.8.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현주의 예술운동이 한창이던 파리의 모드계는 예술계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한 부르조아 계급의 살롱에서 이들 예술가들의 모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였던 파리 상류층 여성들의 생활에서 자극을 받아 더욱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당시 이러한 예술가들의 모드에 대한 관심은 개혁의상 차원에서 새로운 모드의 경향을 탄생시켰으며³⁾ 이는 과거의 예술양식에서 탈피하여 '단순성'과 '우연성'에 의한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던 표현주의 예술의 경향과 함께 파리모드계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 주었다. 따라서 새로움을 추구하며 단순성과 우연성에 역점을 두고 추의 미를 정당화시킨 표현주의 예술이 당대의 복식계에 어떠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예술에 있어서 인간의 내면 감성의 세계를 중시함으로써 조화보다는 그 특성에 연관하여 새로운 미의 개념을 정립한 프랑스 표현주의 예술에 대한 미학적 특성과 정신적 배경을 살펴 보고 그 특성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여 그 유형별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표현주의 예술 속에 나타난 인간의 사상, 감정, 세계관, 사회적 상황과 현대의 복식문화의 긴밀한 연관성을 규명하여, 현대의 다양한 복식문화가 창출되게 된 미학적, 정신적 근원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프랑스 표현주의의 세계

〈시대적, 정신적 배경〉

표현주의는 극단적인 번영과 평화의 시대로부터 분열과 파괴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사회 상황속에서 종래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는 정신적 위기의 시대이자 예술적 활동이 활발하고 자유롭게 진행되는 20세기 초를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1914년에서 1920년까지의 기간은 전쟁, 소요, 혁명의 시기로서 정신적인 황폐와 혼란을 가져다 준 시기였으며, 이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으로하여 기존의 도덕과 철학적 구조가 흔들리게 되었고 인간을 역사와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정신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독일이 처한 특수한 사회적 상황은 민족기질상 성립된 독일의 관념 철학을 바탕으로 표현주의의 미술 운동이 싹트게 되는 결정적인 도화선 구실을 하게 된다. 표현주의가 개성과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는 현대인의 상황과 삶을 그리고자 한 것은 실존주의⁴⁾ 정신의 영향인 반면, 자아와 정서적 경험을 중시하고 표현하려는 그들의 의도는 베르그송의 "직관주의"와 상통한다. 표현주의의 정신적 배경이 되는 게르만적 특성과 라틴적 기질에 토대를 둔 정신적, 미학적 요소는 니체의 사상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의 영향은 20세기 유럽의 다양한 예술과 사상 전개 배경을 이룬다.⁵⁾

사회와 정치의 부조리한 현실의 고발, 원초적 이상세계의 동경, 그리고 지고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그린 표현주의⁶⁾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간

3) 양숙희, "유럽 상징주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3, pp.50~60.

4) 실존주의는 19세기 독일 관념론과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과 도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주체적 존재로서의 실존의 본질을 규명함을 목표로 한다. 실존이란 그러한 현실존재 또는 참된 존재로서의 본래적 자기를 가리킨다.

5)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 자체가 니체 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릭 페리 저, 박미경 역, 「미학적 인간」, 고려원, pp.44~47.

6) 마순자, "표현주의 회화에서의 인간 표현",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2, p.25.

존립을 중시하는 인문주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현주의의 특성은 그로테스크한 신비주의와 맞물려, ‘추(醜)’라는 부정적 미학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본 논문은 정병관이 분류한 직관적, 입체파적, 환상적 표현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1. 직관적 표현주의

직관적 표현주의는 독일 표현주의의 다리파와 유사한 양식으로 베네데토 크로체 (Benedetto Croce, 1866~1952)⁷⁾의 독일 관념철학 범주내에서 형성되었으며 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양식으로 본다. 특징은 첫째, 추의 미학을 미술에 도입하되 자연주의에서 출발한 주관적 변형에 의한 격렬한 표현에 있으며 둘째, 표현과 이념 사이의 긴밀한 일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직관적 표현주의는 비극적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비재현적 직관에 의거하며, 대표적 작가로는 루오(G. Rouault)와 수틴(C. Soutine)을 들 수 있다.

(1) 주제의 특징적 양상

① 사회적 리얼리티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팽창에서 비롯된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인간들의 정신적 위기감은 고조되어 갔다. 또한 20세기 들어 세계는 양대 이데올로기 체제로 재편되고 서구 사회의 제모순들이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표출을 통해 가시화되면서 예술 또한 현실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⁸⁾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직관적 표현주의 작가들에 나타나는 지배적인 특징은 가시적인 현실 세계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비판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그림1). 그들의 사상은 아름다운 자연을 황폐화시켜가는 근대 기계문명을 저주하는 한편, 경쟁적인 상업주의의 비판, 분업제도를 그 속성으로 하는 기계노동의 부적당함의 강조, 특권계급 제도에 대한 부정, 인간평등등의 주장으로 발전하였다.⁹⁾ 직관적 표현주의에 나타나는 사회적 리얼리티의 이념은 곧 사실주의 이념이며, 그 의의는 예술이 역사 전면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과 추의 미학을 도입하여 진지하게 인간 역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¹⁰⁾



(그림 1) '국가적인 집회(The National Assembly)'

② 중세 부흥주의

직관적 표현주의 작가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세 주의적인 경향은 현대복식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주의의 주요 맥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고 있으며, 다양한 중세 원천의 재발견

7) Benedetto Croce, 『Aesthetic, As Science of Expression and General Linguistic』, New York : Noonday Press, 1963. pp.1~22. 참조

8) 김용덕, "19C 이후 서구미술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87, pp.1~2.

9) 勝見勝 著, 朴大淳 譯,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1983. p.28.

10) 김용덕, Op. cit, p.21.

은 표현주의 회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중세부흥주의를 직관적 표현주의의 특징으로 위치지을 수 있는 첫번째 근거는 '목판화의 부흥'으로, 표현주의 회화는 '고딕의 정신'에서 목판화의 뿌리를 찾았는데,¹¹⁾ (그림 2) 이러한 중세적 목판화의 선호 경향은 세기말의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표현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림 2) '당신은 당신의 형제를 죽였소(You have killed your brother)'

두번째 특징은 장식적 수공예의 부활 및 '중세 문양'의 패로디를 들 수 있다. 이는 수공예를 통해 인간성을 되찾고자 한 것¹²⁾으로, 근대문화의 정신과 신의 상실을 비난하여 추상적인 중세중배와 고딕예술, 그리고 원시적 표현방법으로 돌아가라고 역설한 모리스(William Morris)와 러스킨(John Ruskin) 사상은 장인이 왜 예술가로서 평가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바우하우스까지 연계되어 미술의상, 나아가 복식 분야가 예술 양식의

하나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셋째로, 중세부흥주의의 전통성과 현대성의 양면성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근거로 현대에도 패로디(Parody)화하여 나타나는 중세의 사육제의 정신을 통해 표현주의의 기본 정신을 규정지을 수 있다.

③ 시취포스적 직관적 그로테스크

루오와 수틴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형과 왜곡은 내적 심연의 감정을 나타낸 예술적 특질이며, 표면적 요소인 자발성과 즉흥성¹³⁾ 그리고 표현주의 특유의 그로테스크한 표현과 연결되어 감정의 폭발, 잔인성, 수난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시취포스적¹⁴⁾ 비극의 정신을 그려낸다. 그로테스크는 추를 정당화한 표현주의에 이르러서 사회적 리얼리티를 나타내는 효과로 작용됨으로써 현대복식 표현의 두드러진 양상중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다.

2. 입체파적 표현주의

입체파(Cubism)의 조형적 특성에 영향받은 입체파적 표현주의는 인상파의 감각적인 그림에 반대하여 다양한 표현형태를 추구하였으며, 고전적인 규범을 거부하고 과장된 표현과 감정의 강렬화를 위해 형태와 색채를 왜곡(distortion)하여 전통적인 형식을 거부하였다. 이는 독일 표현주의의 청기사파와 유사성을 가지며, 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표현주의의 주요 양상으로서, 추상 회화를 비롯한 20세기 미술 경향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입체파적 표현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동시성(simultaneity)의 표현형식을 시도한 것으로 이는 전통에 대한 혁명과 새로운 미의 구현이었으

11) E.L. Kirchner, "E.L. Kirchner's Chronik der Br cke", College Aart Journal, X(1983) (50), Peter selz, opcit, p.16, 재인용.

12) 小野二郎, 「ウィリアムモリス 研究」, 昌文社, 1978, p.318.

13) 金興洙, "카임 수틴의 예술에 관한 연구", 홍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5. p.1.

14) 양희석, 「예술철학(하)」, 자유문고, 1988, pp.139~206. 참조.

며 둘째, 자연 형태의 해체(Décomposer)와 재조 직(Recomposer)을 통해 나타나는 변형과 왜곡으로 이는 현실적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추(醜)의 개념을 발전시켜 나아갔다는 것이다.

사물의 외형에 대한 기하학적 배치는 추상의 양식적 방식이 되었으며 입체파적 표현주의의 회화 공간은 예속되는 대상을 표현하기 보다 대상에서 공간을 발생시키고 시각공간 대신에 참된 의미의 실제공간을 조형세계에 제시함으로써 종래의 '본다'는 개념을 하나의 시점에서 복수의 시점으로 전환시키는¹⁵⁾ 획기적인 차원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입체파적 표현주의의 특징으로 나타난 오브제(Object)¹⁶⁾의 리얼리티는 회화에서 대상의 본질적인 요소인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의 역동성을 표현한 기법 및 실제 오브제를 회화면에 도입시켜 리얼리티를 표현한 콜라주(Collage) 기법에서 나타난다.

콜라주 기법을 통해 실현된 오브제의 리얼리티는 정선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회화의 전통에서 벗어나 추의 개념을 새로운 미로 도입하였고 이러한 예술적 태도는 미술 이외의 분야에서도 많은 전위작가들에게 새로운 감각을 불어넣어 주었다. 또한, 인체에 대한 가학적 파괴와 변형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분자화된 현대인의 허무 감정이나 자기 부정적 격렬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관습적 이미지에 대한 충격이며 실존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로테스크를 창출하고, 기존의 미의 개념을 전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입체파적 표현주의 화가로는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와 '오르피즘'을 등장 시킨 로베르 들로네(Robert Delaunay)가 있다.

3. 환상적 표현주의

환상적 표현주의는 라틴적인 기질의 낭만주의적인 성향이 농후한 유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형이상학적인 환상예술에서 그 맥을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엽까지 서구 유럽에서 가장 거세게 일어났던 환상예술은 그 영향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치고 있는데, 낭만주의 시대의 열정적인 감정 예찬은 인간의 정신 해방과 함께 자유분방한 예술을 태동시켰으니, 여기에서 라틴적 기질의 낭만적 환상성이 생성되었다고 생각된다.¹⁷⁾

그 주제의 특징은 정신사적 배경을 이루는 신비주의, 자유주의, 실존주의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첫째, 현대문명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순수한 자연과 때묻지 않은 과거를 회상하여 그곳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염원으로 인해, 원시주의 예술에서 모든 표현의 근원을 찾고자 하였다. 둘째, 성과 에로티시즘을 통하여 여성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미를 성의 해방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세 번째로, 무미 건조한 현실 사회를 환상적이고 순수한 세계로 우화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왜곡되고 기괴한 형태로의 상징적 표현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의외성에서 수반되는 유머를 가져다주며, 이는 환상적 그로테스크의 의미로 해석된다. 표현 기법상의 특징으로는 변용과 전위법, 우화성과 유희성, 낙서, 기호등의 형상과 기호를 통한 아동화적인 특성들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15) Dierre Daix, 「Cubist and Cubism」, New York : Rozilli, 1982, p.43.

16) 오브제-주관 또는 주체와 대립되는 대상이나 사물을 지칭하며, 미술에서는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물체를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대상', '물체' 등의 말과 동의어로 쓰였다.

17) A. 야페, 이희순 譯, 「미술과 상징」, 열화당, 1979, p.16.

III. 현대 복식에 나타난 표현주의

1. 개혁의상

개혁의상의 등장에 미학적 계기를 마련한 것은 러스킨과 모리스등이 주장한 수공예 운동으로서, 이 운동이 값싼 예술품의 대량생산을 거부하고 인간중심의 수공예에 의한 생산 활동을 주장하였다는 점은 휴머니즘에 입각한 직관적 표현주의의 사회적 리얼리티에 기반을 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대 디자인 사상가들의 이론들에 입각하여 등장한 개혁의상은 대체적으로 장식성을 배제하고 예술적인 조형성을 강조하였으며, 기능적인 경향과 함께 여권을 존중하는 현대 여성복의 기초를 다졌다. 이의 주요흐름은 가르송느 룩(Garçonne look),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 린제리 룩(Lingerie look)등으로 분류된다.

(1) 가르송느 룩(Garçonne look)

여성의 사회활동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더욱 활발해졌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자신들을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1920년대에 들어 여성복식에서 '가르송느 룩'을 통해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이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발휘하게된 시대상황에 걸맞게 대담하게 무릎을 내놓은 짧은스커트와 소년처럼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의 가르송느 룩은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으로서 여성복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으며, 여성다움에 대한 전면적인 붕괴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에게도 활동적 요구가 제기되면서 여성 의상에 남성복의 요소들이 도입된 것으로, 19세기 말 비슬스타일에서 레드펜(Charles Poynter Redfern)이나 테일러드 자켓(Tailored Jacket)이 디자인되어 남녀가 같은 스타일의 의상을 공유한 유니섹스 모드로 등장하였으며, 20세기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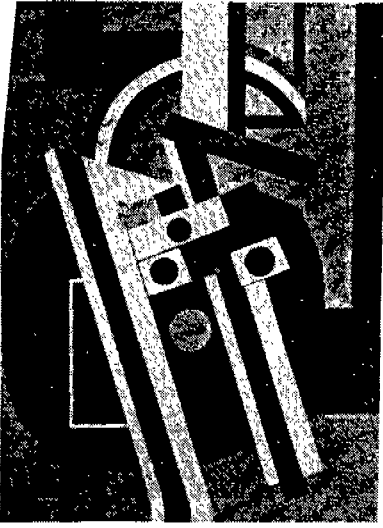
의 의생활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되었다. 뷔와레(Paul Poiret)가 이루어 놓은 직선적인 의상의 구조를 바탕으로한 1920년대의 가르송느 룩은 코르셋으로 잘 정돈된 여성의 곡선미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진재적으로 짧고 기하학적인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외형상 남녀의 상징적 구분이 없어진 관형(Tubular) 실루엣의 도입은 입체파와 연관성을 가지는데 피카소의 기하학적 회화와 '파라드(Parade)'의 의상(그림 3), 페르낭 레제(Fernand Léger)의 튜브의 세계(그림 4)가 이러한 유행의 미학적 근기가 되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용인용 수용함으로써 가르송느 룩의 완성을 유도하였다.¹⁸⁾ 이와 같이 복식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상대방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세기가 바뀌는 동시대에 나타났음은 표현주의 예술운동의 영향임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예술에 나타난 새로운 방향의 추구는 여성=자연=객체, 남성=문화=주체라는 여성의 종속상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오랜 문화적 이분법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남성이 여성들에게 강요한 '속박'을 의미하는 '여성스러운 패션'으로부터의 탈출의 시도를 의미하게 되었고, 남성적 이미지를 차용한 여성 자신의 강화와 남성다움의 표면적인 메시지



(그림 3) '파라드(Parade)의 무대의상'

18) The Era of Individualism, p.4.



(그림 4) 콤포지션(Composition)



(그림 5) 가르손느 룩(Garçonne Look)

를 약화시키는 양성화 모드의 탄생을 유도한 것이다.

1920년대의 많은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공감하여 단순하고 편안한 의상을 창조해 내하고자 하였으며, 단순성을 원칙으로 하고 우아함이 동시에 표출된 가르손느 룩을 주도해 나갔다. 1920년대의 대표적 디자이너인 샤넬(Gabrielle Chanel)은 피카소등 당시의 젊은 전위파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현대적인 조형양식에 영향을 받아 '단순성의 추구'를 생명으로 하는 직선적인 실루엣의 가르손느 스타일을 디자인하였고(그림 5), 입체화 회화에서 주로 쓰이던 베이지(Beige) 색을 애용하여 더욱 간결하고 단순한 의상미를 표현하였다. 또한 흰색을 위주로 한 기존의 의상 유행에 반대하여 검정색, 흰색, 회색, 감색을 과감하게 여성복에 도입시킴으로써 기존의 미의 개념을 변모시켰다.

라인은 슬림 앤 룩, 샤넬 라인, 로우 웨이스트 라인이며, 칼라는 윙칼라, 바또 네크라인, 베어드 백, 데콜레, V-네크라인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녀의 의상은 인체를 코르셋으로부터 해방시킨 뿔뿔외레나 비오네(Madeleine Vionnet)류의 개혁 의상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직관적 표현주의와 관

련하여 사회적 리얼리티를 표현해 내는 이데올로기의 특성 차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성별과 계층으로 인해 소외된 자들의 구습타파 의지에 자극된 샤넬은 전통적 여성 패션을 파괴시키고 그 당시의 남자 멋쟁이와 관련되었던 간소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전통적인 여성 패션을 대치시켰던 것이다.

샤넬에게 영향받은 장 빠투(Jean Patou)는 1925년 스커트단을 18인치나 올려 가르손느 룩을 발표하였다. 무릎을 드러낸 짧은 스커트에 V자형 데콜레(Décolletée)와 슬리브리스(Sleeveless)로 대담한 시도를 함으로써(그림 6), 유선형이며 현대적인 가르손느 룩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 당시 그는 샤넬과 겨루는 가르손느 룩의 기수로서 때로는 샤넬의 흑색과 가르손느 룩에 대항해서 최고급의 화려한 색조의 옷감을 만들어서 우아한 여성스러움을 과시하는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중심 색상으로는 빠투 블루, 도버스넥 그레이, 옅은 갈색, 청자색을 사용하였으며, 비대칭으로 형태를 구성하거나 대담한 커팅기법으로 분석적인 외형을 나타내어 인체를 강조하거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의상의 일부를 생략하고 단순화하여 왜곡시키는 기법들을 다양하게 이용하였다.



(그림 6) 가르손느 룩(Garçonne Look)

<그림 7>은 비오네의 작품으로 그 당시의 가르손느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소년과 같이 짧은 머리 스타일과 소매가 없고 로우 웨이스트인 드레스의 단순한 아름다움이 제시되어 있다. 비오네는 자신의 특기인 드레이프를 이용하고 바이어스 선을 둘러 장식하였다. 그녀는 바이어스 제단, 파고팅, 핀턱, 패턴의 변형을 통해 구조적이고 장식적인 면을 배려한 동시 효과를 이루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영국에서도 '남학생



(그림 7) 비오네의 가르손느 룩

과 같은 여성'(School Boyish Girl), 미국에서는 '홀래퍼(Flapper)스타일', 이탈리아에서는 마스끼에따(Maschiette)스타일이 등장하였다. 이처럼 유럽 각국에서 가르손느 룩의 출현을 촉진한 요인은 재즈나 탱고같은 새로운 경향의 음악을 따라 나타난 춤의 열풍과 기하학적인 관형 실루엣에 미학적인 근거를 부여해 준 입체파 미술이라 할 수 있다.

가르손느 룩이 개혁 의상으로서 갖는 의미는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된 여성상의 표현인 동시에 전통적인 여성복의 아름다움을 과감하게 파괴하고 '여성다움의 개념상에서의 전문적인 혁명'으로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 계층간의 차이를 평준화하고, 모든 계층의 전여성들에게 애용되었다는 점에서 사회 개혁 의상으로서의 의미가 크며, 사회계층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연령과 신체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의 짧은 스타일로 전 여성들을 표준화 하였다는 점에서도 '완전한 모드의 혁신'을 이루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실루엣에서 기존의 의상의 전통성을 파괴하고 단순성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당시의 표현주의 예술성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밀리터리 룩 (Military Look)

표현주의의 배경으로 작용한 1, 2차 세계대전과 이데올로기의 상관관계가 복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사회적 인 차별과 극단적인 계급차 그리고 성차(性差)의 편견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여성 복식의 근대화 과정 중에서 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계기로 당시에 실시된 작업복을 통하여 남녀 공통된 의복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안겨 주었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 노동자들의 일상복으로 도입된 작업복과 함께 등장하게 된 밀리터리 룩은 그 시대적 분위기가 유사한 1930, 40년대를 거치면서 그 양상을 약간씩 달리

한다. 30년대의 패션은 과거 20여년전에 대한 향수로 인하여 하나의 순환하는 패션주제가 되었으며, 대공황은 복식의 색을 우울한 색조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모자, 머리모양과 목선을 모두 아래로 처지게 하였는데¹⁹⁾ 증절모 모양의 머쉬룸(Mushroom)이나 리보옥스(Reboux)등의 모자를 정면의 눈까지 깊이 눌러쓰고, 각진 어깨와 직선적인 단조로운 실루엣의 테일러드 수트를 착용하여 시대의 우울한 분위기를 나타내었다(그림 8).



(그림 8) 1930년대 대공황기의 스타일

따라서 당시까지 추구해 오던 여성의 미는 시대의 흐름인 기능주의를 의생활에 적용하게 되어, 중세이래 5세기 동안 여성복의 필수품이었던 코르셋이 사라지고 스커트는 바닥으로부터 8인치 떨어진 짧고 풍성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 패션은 랑방(Janne Lanvin)을 일약 유명한 디자이너로 만들었다. 또한 그의 전쟁 중의 패션은 군복 이미지의 단추 달린 포켓(Pocket)이나 선이 둘러진 커프스(Cuffs)와 같은 디테일을 의상 디자인에 응용함으로써 남성적인 강인한 이미지의 밀리터리 룩을 탄생시키는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불황 속에서 침체해 있던 1930년대의 패션계에

활기를 가져다 준 슂끼아빠렐리(Elsa Schiaparelli) 역시 대담하고 남성적인 특성을 지닌 의상을 소개하였다. 그녀가 29년도에 발표한 양면으로 번갈아 입을 수 있는 남성적인 트위드(Tweed) 테일러드 코트와 여성적인 드레스의 앙상블은 이후 믹스 앤드 멧치 세퍼레이츠 (Mix and match Separates)를 예견하는 시도가 되었다(그림 9).



(그림 9) 남성적 코트(coat)와 여성적 수트(suit)의 앙상블

1932년에는 오버롤 파자마를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2차대전중에는 직업여성들에게 입혀졌으며, 이후 여성 비행복(Flying Suit), 점프 수트로 애용되었다. 그 다음 단계로 트라우저 스커트(Trouser Skirt)는 '여성을 위한 바지'라는 슬로건으로 유럽과 미국 여성들에게 유니폼처럼 애용되었다. 1930, 40년대 밀리터리 룩의 영향은 직접적인 군복의 반영보다는 어깨넓이를 강조하는 추세로 진행하게 되었으며(그림10), 남녀 모두 비슷한 일상복을 입고 오픈시킨 셔츠를 입었는데, 정치적 견해에서 비롯된 이러한 반문화적인 패션은 이후 표현주의 경향을 띠면서 극단화된다.

1939년 2차대전이 발발하기 전부터 여성복의 스커트는 당시의 플레어스커트에서 가느다란 직선형의 타이트한 스커트로 변화되어 갖고 허리선은

19) Elizabeth Rouse, "Understanding Fashion", Chap, 6,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 p.92.



(그림 10) 1940년대 전후 초기 각진 어깨 슈트

로우 웨이스트(Low Waist)에서 본래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며, 어깨폭은 패드(Pad)를 넣은 것처럼 각지면서 높고 넓게 과장되어 남성적인 강인함이 표현되었다. 2차대전 기간 동안에는 의복의 형태는 물론 직물에 있어서도 검정색, 회색, 갈색 계통의 색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실용성이 강조되었으며, 이 시기의 군대복장은 민간인 의복에도 새로운 영향을 많이 주어서 미국군대에서 사용한 직물과 의복실험은 민간 피복재료의 생산에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1945년에 세계대전은 끝났으나 1946년까지는 그대로 밀리터리 룩이 계속되었으며, 1940년대 후반들어 밀리터리 룩으로 대표되던 반체제 복식의 경향은 좀더 과격하게 표현되었다. 즉 사회가 반체제적이라고 비난하는 최하층민의 존재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외모를 갈구하면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미학적인 표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당대의 우울한 시대상을 적극적으로 자세로 받아들여 복식예술로 승화시킨 사회참여적 경향은 직관적 표현주의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리얼리티로 이해할 수 있다. 리얼리티 즉, 사실주의적 경향

은 환영적인 표현이나 인습적인 모습, 또는 이미 지나 이상주의적인 것들에 대항하여 진실한 모습을 추구하는 방법²⁰⁾으로 복식에서의 이러한 태도는 인간을 장식하거나 돋보이게 하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복식이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을 적나라하고 진실되게 반영하여, 복식을 통해 정치, 사회적 상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현대복식에 나타나는 밀리터리 룩은 부드럽고 우아한 여성복의 전통미에서 남성적이고 강한 힘을 전달하였고, 나아가 반체제적인 저항과 도전에 근거한 반패션주의적 경향으로까지 의미가 확대되었다.

(3) 란제리 룩(Lingerie Look)

과거의 전통적인 미의 개념에 대한 회의와 비판으로 예술철학이 머리를 들게 되면서 복식계에도 보다 창의적인 조형미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반감과 충격과 놀라움, 유모어를 느끼게 하는 추한 소재를 대담하게 도입하게 하였다. 따라서 디오니소스적(Dionysos)인 혼돈과 무질서가 패션에서 그로테스크한 의미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양상은 실존주의와 신비주의에 기반을 둔 표현주의의 변종부터 속성과 관련하여 볼 때,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상반되는 특성의 양면적 결과로 다양성을 제시해 준다.

복식 조형에 있어서 변용과 전위에 의한 표현 방법은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 패션에서 보여지는 용도 변경에 의한 변용과 전위의 대표적인 경우로 속옷이 겉옷으로 대체되는 것을 들 수 있다. 19세기에는 속옷의 경박한 모습은 유희와 유혹의 표본으로 비쳤으나, 이미 이때부터 속옷이 겉옷화되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자의식적인 발전의 모습도 보였으며, 19세기와 20세기에 그 애매성이 계기됨에 따라 서서히

20) Gregory Battock. 「Super Realism」, N.Y. : E.P Dutton, 1975, p.22.

겉옷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슈미즈가 겉옷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는것은 당시 여성에게 부여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후루겔(Flügel)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적본능은 전환된 형태로 나타나며, 의복 착용 동기와 연관된다는 연구를 하였다. 그는 패션 변화의 주요원동력이 정숙성과 비정숙성의 정신적 대립을 통해 발생했다고 하여 양면가치로 간주하였으며, 여성의 내면에는 수동적인 노출증의 경향이 숨겨져 있어서 복식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표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복식은 남성의 복식보다 정숙하면서도 동시에 노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며,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므로 복식에 성적인 과시를 부여하여 에로틱하게 보이려 한다는 것이다.²¹⁾

19세기부터 새로운 속옷 스타일이, 매력적인 여성의 형상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발생하였으며, 여성의 패션은 여성 신체부위중 특정 부분의 선택적인 노출, 은폐, 강조를 통하여 남성의 시선을 끌려는 유혹의 원칙에 의해 조절되었다. 현대패션 또한 옷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남성을 유혹하고 성적 충동을 일으키려는 숨은 의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는 인체를 교묘히 드러내기도 하고 감싸기도 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의도하고 있다. 그리고 노출되는 부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감지한 비오네는 “여성은 제각기 자신의 입는 방법 즉, 자신의 모드를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1908년 비대칭의 사진으로 앞여미를 처리한 것과 가슴선을 깊게 파서 가슴을 드러낸, 당시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란제리 룩을 발표하였다(그림 11). 리처드 마틴(Richard Martin)과 헤롤드 코다(Harold Koda)는 비오네의 의상에 대하여 그녀의 속옷 봉제법은 새로운 에로티시즘의 의미를 상징한다고 하였다. 즉 그들은 비



(그림 11) 화장 가운을 입고 있는 여인

오네가 다른 파고팅(Faggoting), 피코(Picot), 핑킹(Pinking) 등의 기법을 ‘란제리 가공(Lingerie Finish)’이라고 분류하여 속옷에 이용된 기법을 의의류에 도입하여 페티시즘(Peticism)적인 에로티시즘을 표현했다고 주장한다.

모드란 무엇보다도 제각기 여성이 갖는 가치를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도록 새로운 미를 창출해 내는 것으로서 이 란제리 의상은 여성들만이 갖는 판능적 아름다움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시킨 새로운 모드였던 것이다. 속옷은 매우 관능적이면서 그 장식은 성적으로 매우 은밀한 분위기를 전달해 준다. 따라서 빅토리아시대에 모닝 드레스, 티 가운, 실내복 등을 의외로서 전위시켜 사용한 선구자는 바로 매춘부들이었으며, 곧이어 하이 패션 스타일이 이를 뒤따랐다. 란제리룩을 통해서 현대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노출의 의미는 곧 비정숙성을 의미하는 퇴폐미로 간주된다. 또한 퇴폐미는 기존의 전통미와는 반대되는 추의 개념의 아름다움인 것이며, 따라서 현대 패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노출성의 란제리 패션은 추의 미의 패션인 것이다.

21) J.C. Flügel, 『Psychology』, N.Y : International Univ.Press, 1967, p.107.

과거 시대에 있어 자연적인 신체의 균형을 변형하는 것을 미로 간주하는 문화로부터 ‘파운데이션(FOUND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고, 20세기 초에 비오네와 샤넬은 그것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 여성의 신체를 비교적 자연스러운 창작형태로 변화시켰지만, 다시 한 때에는 가슴을 풍만하게 표현하는 새로운 라인이 등장함으로써 브래지어산업이 크게 발전되기도 하였다. 여성의 인체를 가공된 미의 기준으로 이끈 브래지어를 이제는 몇몇한 외의의 형태로 등장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낸 것은 결국 현대패션에 나타난 표현주의 미학의 본질적 요소인 파괴의 형태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의 브래지어는 은폐 대 노출의 형식적인 디자인 특성을 이용한 에로틱한 순결성(정숙과 비정숙)의 변증법의 예로써 보일 수 있다.²²⁾

외의가 사회성을 띠고 있다면 내의는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이며, 관능의 즐거움을 부여한다. 따라서 에로티시즘은 코르셋으로 가장 강하게 표현되어 왔으며, 요즈음의 속옷의 걸옷화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에로틱한 외의인 것이다. 속옷의 관점에서 보면, 노출은 아방 라 레트르(avant la lettre)의 추론으로 보인다. 비오네의 급진적인 의상기법의 노출은 완성된 옷으로부터 후퇴하는 미완성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속옷의 걸옷으로의 전위는 의상을 파괴시켜 미완성을 향한 입은 듯 하면서 무언가 완전치 못한 파괴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미완성의 미는 퇴폐미로서, 이는 곧 추의 미로 인지(認知)되는 것이다.

이제 속옷은 때로는 걸옷처럼 입거나 아니면 걸옷과 같이 착용하게 되었으며 란제리는 화려하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전달한다. 1900년대 이후 노출이 점점 심해지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션의

현상은 정통미와 퇴폐미의 양면가치를 통해 헤겔의 정, 반, 합 의 변증법적 새로운 미의 개념을 제시하는, 표현주의의 근원에서 비롯되어진 세기말적인 데카당스한 그로테스크의 의미의 표현주의의 본질로 이해되는 것이다.

2. 구조주의적 의상

의상의 역사는 노출의 역사로서 원형을 파괴하며²³⁾, 의상의 구조는 인간의 의생활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구축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한다. 20세기 현대 복식은 의상을 통한 신체조형에 주력해 왔다. 현대복식의 혁신은 다양한 사회적, 기능적 영향으로 인하여 인공구조물이 사라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구조적 형태의 조형이 의상디자인에서 요구되어졌다. 현대복식에 나타난 입체파적 표현주의는 복식을 인체의 형태를 변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자율적인 표현을 통해 새로운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예술의 일부로 이해한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피카소가 직접 디자인한 무대의상이 그러했고, 이탈리아의 미래파와 러시아의 구성주의 미술가들, 그리고 소냐 들로네(Sonia Deiaunay)에 이르기까지²⁴⁾, 그러한 창작 이념이 뚜렷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의상디자인의 창작태도는 완전히 전통을 배제한 새로운 패션을 향한 복식사의 혁명으로 사료된다. 이 새로운 패션에 대해 케네디 프레스터(Kennedy Fraster)는 ‘건축적’ 또는 ‘선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건축의 조형적 특성에서 영향받은 패션은 기하학적이고 근대적인 경향을 갖게 된다. 이러한 ‘건축학적’ 시각은 첫째, 선의 명확성, 둘째, 명료한 마무리, 셋째, 불연속적인 모양과 구조로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로서 입체파적 표현주의에 영향받은 20세기 의

22) Fred Davis, p.88.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and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88.

23) Richard Martin & Harold Koda, 「The Historical Mode」, N.Y. : Rizzoli, 1989, P.11

24) Art to Wear “American Craft”, 1983. October, P.14.

상 실루엣은 극단적인 변형을 거치게 되었다.²⁵⁾

(1) 기하학적 형태

현대복식의 조형방법에 나타난 입체파적 표현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의상형태의 변형과 왜곡에 있으며, 이것은 의상구성에 있어 기존의 규칙을 버리고 보다 기초적인 조형방법으로 구성해 나간 기하학적인 형태에 의해 실현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몇몇 디자이너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현대복식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기도 하였다.

기하학적 형태는 도시적, 상징적 또는 장식적인 표현으로서 인간사고(思考)의 세련되고 복잡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질서있고 일정한 법칙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명쾌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제공해 주므로 시각적으로 강렬한 효과를 유발한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아르데코는 공업적 생산 방식을 미술과 결합시킨 기능적이고 고전적인 직선미를 추구하였으며²⁶⁾, 복식에서도 명쾌한 색채와 기하학적인 문양 그리고 단순한 형태를 주로 다루었다(그림 12). 이로써 보다 기능적인 현대복식이 출발하게 된다.

현대복식에서 기하학적 특성은 의상의 전체적인 조형적 측면과 직물의 문양에서 표현되어 왔으며, 현대 문명 속에서 환경을 조성해주는 기계적이고 건축적인 구조와 긴밀한 미학적 관련을 맺고 이루어진 의상의 구성 형태로도 나타난다. 또한 의상의 세부 장식에서도 기하학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직물의 문양은 입체파와 동일한 조형성을 가지는 다양한 미술 작품의 영향으로 의상에 반영되었다.



(그림 12) 'A Tailored Suit of 1909'

20세기 전반부에 기하학적 형태에 근거하여 구조적인 의상 경향을 보여준 디자이너는 마들린느 비오네, 뽀 뿌와레, 가브리엘 샤넬, 장 빠뚜, 엘자 스끼아빠렐리,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Cristobal Balenciaga)를 중심으로 이들에게 그 조형성을 이어 받은 피에르 가르댕(PierreGardin)과 로베르토 가푸치(Roberto Gapucci)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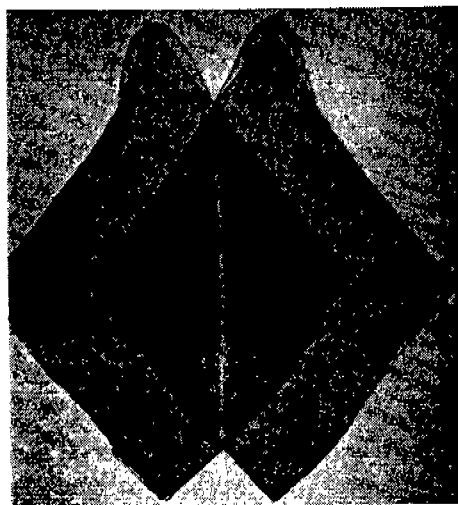
독특한 조형성으로 완벽한 구조주의적 의상을 제작했던 사람은 1910년대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마들리느 비오네였다. 그녀는 현대적 방법으로 직물을 표현했던 최초의 디자이너²⁷⁾로서 '패션의 건축가'라고 불리었다. 이는 그녀가 코트셋이나 어깨심과 같은 인공물을 거부하고 오직 천 자체를 인체에 밀착시키지 않고 우아한 곡선으로 표현함으로써 입체적인 디자인을 개발해내었기 때문이다. 특히, 1920년대 기성복에 혁신을 가져다 주었던 바이어스(bias) 재단을 통해 신체곡선을 보다

25) Maggie Pexte Murray, 「Changing Styles in Fashion, who, what, why」, N.Y. : Fairchild Publications, 1989, P.293.

26) 정홍숙, 근대 복식 문화사, 교문사, 1989, P.54. 재인용

27)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Decorative & Structural Design in Madeleine Vionnet's Work", 「Coustume」 No.25, 1991.

잘 나타낼 수 있었으며, 이후 여성복에 있어 우아하게 나부끼는 고전적 스타일을 창조하였다.²⁸⁾ 또한 바이어스 재단을 통해 마름모형 드레스, 삼각형 드레스와 같은 기하학적 스타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고, 티어드 바이어스(tierd bias)재단이나 행커치프 포인트(handkerchief point)로서 스커트 단이 기하학적 형태로 불규칙적으로 길게 늘어지도록 표현하여 인체의 동작에 따라 새로운 입체감이 형성되는 매우 현대적인 조형감각을 보여 주었다(그림 13).



(그림 13) 바이어스(bias)를 이용한 행커치프 포인트 드레스(handkerchief points dress)

빨 뿌와레는 1920년대 기하학적 실루엣의 등장에 원동력과 같은 구실을 하였으며, 비오네와 마찬가지로 패드나 코르셋등의 인공 구조물을 거부하고 의상의 구성 단계에서 패턴을 변형시켜 의상에 새로운 입체감을 부여하였다.

1930년대에 기발하고 혁신적인 작품경향으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엘사 스키야빠렐리는 아르데코의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하여 고전적이며 대담하고 기하학적인 형태, 단순한 선, 강렬한 색상 등을 자신의 작품에서 표현하였다(그림 14). 기하



(그림 14) 어깨를 강조하고 하체를 약화시킨 의상

학적인 형태의 문양은 20세기 초 러시아 직물의 발전과 더불어 서구 패션에서 쏘냐 들로네(Sonia Delaunay)에 의해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입체파에서 시작하여 기하학적 추상에 이르는 그녀의 예술 세계는 회화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장식 미술을 통하여 일상생활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장 빠투 또한 다른 디자이너들 보다도 기하학적인 형태와 선을 조직적으로 배열한 의상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냈다. 이를 위해 의상면을 기하학적인 여러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비대칭적이고 유기적인, 때로는 기계적인 조립과도 같이 조직적인 구성을 창안하기도 하고 기하학적인 문양을 통해 역동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그림 15).

입체파적 표현주의 복식의 특성인 기하학적 형태는 간결하게 평면적으로 구성된 경우와 건축적이고 입체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두 양상이 대표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디자이너들은 재질의 드레이프성 보다는 형태 안정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여 주로 커팅(cutting) 기법의 묘미를 살려 표현하였다. 또한 명확한 윤곽선을 강조 하기 위하여 단색을 사용하고, 간결한 실루엣과 함께 리

28) Jaqueline Demomex, 「Madeleine Vionnet」, London : Thomas & Hudson, 1991. pp.67~68.



(그림 15) 마름모형의 규칙적인 면분할을 이용한 의상 뼈대(1 Patou)

듬감이 넘치는 기하무늬와 색채 표현으로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한 변형과 왜곡은 전체 실루엣에 적용된 것 외에 스커트, 칼라, 주머니, 의상의 가장자리 그리고 소매등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스커트는 여성복의 아이템 중 그 조형적 측면에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형성되었다. 즉, 인체의 기본 구조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 및 왜곡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입체성에 근거한 복식의 조형성은 기하학적 형태의 복합적인 결합에 의한 구조주의적 의상 및 '해체와 파괴' 라는 표현주의 회화의 형식을 반영한 창작태도의 일면으로서 의상을 기하학적 형태로 파괴 또는 해체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주의적 의상에서 나타나는 그로테스크는 바로 합리성을 상징하는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가 복합적이고 과장되게 어울려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디오니소스적인 비합리적 산물로 남게되는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2) 역동적 색채

표현주의는 색채를 통한 표현성의 강화로써 그

특성이 두드러진다. 표현주의 작가들은 강렬한 색채를 통하여 인간의 감정과 시대상을 표출하였고, 형태의 파괴와 무브망, 변형의 요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 색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는 입체파적 표현주의의 영역에 속하는 오르피즘에서 이루어졌고, 쏘냐 들로네(Sonia Delauney)는 오르피즘의 미학을 바탕으로 한 '색채의 동시성'을 의상 디자인과 접목시켜 현대문명의 속도감과 기계적인 구조를 표현한 새로운 복식미를 제시하였다. 더우기 기하학적 형태의 간결한 표현성과 색입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를 이룬 그녀의 예술에 있어서, 색채는 생명력을 부여해 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쏘냐는 색채의 역동성(Dynamism)을 달성하였고, 전통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였다. 이러한 역동적인 힘은 변화하는 삶에 적응하고자 하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현대복식의 형성을 주도해 나간 뵈 뷔와레와 라울 듀피(Raul Dufy)의 의상에도 그녀의 직물디자인이 사용되었다. 그녀의 추상적인 기하입자와 강한 색채의 반복적인 대비는 이후 복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옵-아트(Op-Art)의 성립에 결정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러시아 발레단의 무대의상을 제작하였던 레온 박스트(Léon Bakst)는 1921년 작품인 '잠자는 공주(Sleeping Princess)'에서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역동적인 표현성을 제시하여 그의 창작성에 내재된 표현주의적 성향을 대변해 주고 있다.

박스트의 무대의상에 사용된 색상들은 환상적인 동양의 원색적이고 화려한 색채들을 다양하게 조화시켜 다이내믹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이것은 색채를 통한 표현성의 강화로써 그 특징이 두드러진 표현주의 예술 성향과 일치되는 것으로 빨강, 파랑, 초록, 노랑 등의 강한 원색과 기하학적 형태들을 조화롭게 구사함으로써 전통적인 미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색채에 의한 역동성을 창출해 내었다.

독특한 창작성으로 복식을 통한 새로운 묘미를



(그림 16) 검정과 쇼킹 핑크(shocking pink)의 대비

보여준 스키아빠렐리는 <그림 16>에서와 같이 기하학적 형태 위에 색상의 대비를 이루어 역동감을 연출하였다. 사다리꼴 실루엣의 길고 풍성한 가운을 자신의 상징적 색상인 쇼킹 핑크(Shocking pink)와 검정색을 이용한 사각형의 패치워크로 구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착시효과를 유발하여 마치 큰 조각들이 움직이는 듯한 역동감을 느끼게 한다.

복식에서 역동적인 색채의 표현은 20세기 중반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에 의해 나타난 것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고, 이전의 미술과 복식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었다. 이는 단지 시각적 착시 효과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각의 시각적 형상으로 급변하는 사람들의 미적 경험과 생활을 보다 적극적으로 만족시키려는 노력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3) 꼴라주(Collage) 기법

입체파 화가들에 의해 회화에 등장하게 된 꼴라주 기법은 화면에 물감 이외의 소품을 부착시키는

기법으로, 해체되고 변형된 대상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회복시키며 그 대상이 지닌 시각적 리얼리티를 재현해 주었다. 그 결과 이 기법은 화면에 입체감을 형성해 주는 동시에 장식적인 성격을 부여해 주었다. 이는 새롭고 실험적인 소재의 도입으로 인해 의외성과 부조화를 유발시키는 동시에 유희적인 일면도 지니는 일종의 그로테스크를 표현한 것으로, 현대 물질문명의 리얼리티를 의상을 통해 그대로 제시해 주는 표현주의적 기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꼴라주 기법을 구사한 표현주의적인 의상들은 복식에 표현된 추의 미학의 하나인 아방가르드 룩으로서 실험적이고 충격적인 기법을 구사함으로써 의상에서 기괴하고 부조화된 느낌을 전달하는 동시에 재치와 유머를 극적으로 연출하였다.

현대복식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꼴라주 기법은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소재들을 조화시키고,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직물 이외에 이질적인 재료나 기술을 사용하여 의상을 제작하거나 장식하는 것으로 고전적이고 고상한 요소에 새로운 소재들을 혼합한 것은 다각적인 '칵테일 효과(Cocktail Effect)'를 보여주며, 보다 구조주의적인 의미의 '바로크 효과(Baroque Effect)'를 제시해 준다.²⁹⁾ 이러한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에 의한 꼴라주 기법에서의 전형적인 방법은 패치워크(Patchwork)이다. 입체파적 표현주의 계열의 화가이자 의상 디자이너이기도 한 쏘냐 들로네는 꼴라주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재료와의 관계를 이용해 '재료의 동시성'을 표현하였다. 서로 다른 재질과 색채를 조화시키는 것은 쏘냐 의상의 동시성의 개념인 것이다. 그외에 기존에 사용되던 의복 재료의 한계성에서 탈피하여 독특한 재료를 혁신적으로 도입한 경우는 20세기초부터 두드러진 현상을 보인다. 스키아빠렐리는 전혀 조화될 수 없는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부조화 속에서 어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

29) Gianni Versace & Omar Calabrese, 「Versace Signature」, Abbeville Press Publishers, N.Y., London, Paris, 1991, P.14.



(그림 17) 유리튜닉(glass tu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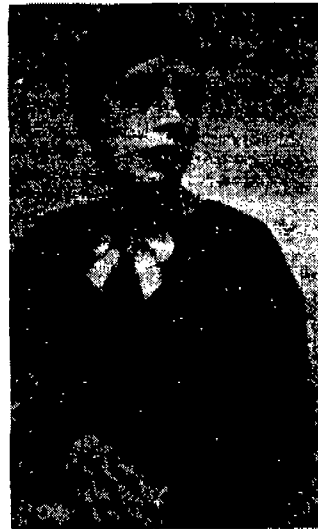
(그림 18) 슈-햇(shoe-hat)

는 추의 속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1934년 ‘유리튜닉(glass tunic)’이라는 이름으로 뽀뽀하고 투명한 스판 합성섬유로된 의상(그림 17)을 발표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이외에도 비에라, 수지, 셀로판, 니트등의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전위법에 의한 표현 방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그림 18).

표현주의 미학이론의 본질을 이루는 인간회복

의 표현은 기호와 추상적 형상으로 인한 우화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패션에 도입되고 있으며, 마치 의상을 낙서 종이처럼 표현하여 뽀뽀에 꼴레 기법이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20세기의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여성 패션에서 탈피하고 개성과 독특함을 원하는 열망은 의상에 있어 보다 기발하고 색다른 기법을 창안해내기에 이르렀다. 여러가지로 창안된 흥미위주의 기법중에서 입체파적 표현주의 의 꼴라주 기법은 ‘눈속임 기법-트럼프 로일(Trompe L'oeil)’이다. 이것은 피카소와 브라크가 고안한 뽀뽀에 꼴레에서 얻어진 기법으로 의상에서의 트럼프 로일은 디자인, 색상, 형태, 선, 재질감의 대비로서 착시를 유도하는 기법으로 발전하였다(그림 19). 착용이나 형태의 착시를 목적으로 하는 트럼프 로일은 일상 생활에서도 친숙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기발한 아이디어로 의상에 유희성을 제공한다.



(그림 19) 보우 트럼프 로일(Bow Trompe L'oeil)

IV. 결 론

시대 의지란 예술적인 형상물로 양식화됨에 따라 객관화되는 것이며, 이러한 시대 의지가 반영된 20세기 복식을 인간주의(Humanism)에 기초 이념을 둔 표현주의 예술미학의 본질과 연관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20세기 현대복식은 표현주의 예술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음을 결과로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예술사조와 연관된 복식 연구는 대부분 조형적인 측면에서 접근되어 왔을 뿐, 복식 창작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예술사조의 정신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접근한 복식 연구는 부족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표현주의 예술미학의 정신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여, 유형에 따른 특성과 복식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또한 그 유형별 표현 기법상의 특성과 연관하여 20세기 현대복식을 표현주의의 정신성과 조형성에 입각하여 규명하였음은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표현주의에 영향받은 현대복식의 경향은 사회적 리얼리티와 관련한 새로운 시대적 요청으로하여 현실상황을 반영한 개혁의상과 변화하는 미의식에 의해 새로운 조형성을 추구하는 구조주의적 의상으로 나타났다.

(1) 직관적 표현주의에 나타나는 사회참여적인 특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개혁의상은 19세기 모드에 반기를 들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시대적 이념을 반영한 것이었고, 의복 디자이너 역시 순수 예술 분야의 예술가 못지 않게 본능적 직관에 의해 세계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이념의 문제를 파악하여, 작품으로 표현해 내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세기초 여성복에 대두된 개혁의상의 주요 흐름을 가르손느 룩, 밀리터리 룩, 란제리 룩으로 분류하였다.

① 1920년대 들어 빠뚜, 샤넬, 몰리뇌, 비오네 등 당시의 모든 디자이너들이 표현하기 시작한 가르손느 룩은 관형 실루엣의 좁고, 긴 라인을 형성한

것이며, 짧은 스커트와 대담한 노출, 소년같이 짧은 머리 스타일 등을 과감하게 등장시켰다. 이는 전통적인 여성복의 개념을 파괴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새로이 획득된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완전한 모드'의 혁신을 가져왔고, 실루엣에 있어 기존 의상의 전통성을 파괴하고 단순성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표현주의 예술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현대복식에 나타난 밀리터리룩은 부드럽고 우아한 여성복의 전통미에서 남성적이고 호전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여 여성들에게 복식을 통해 적극적이고 강한 힘을 전달하였고, 나아가 반체제적인 저항과 도전에 근거한 반패션주의적 경향으로까지 의미가 확대되었으며 전후 스타일답게 기괴한 추의 속성을 지니고 시대의 우울함을 표현하는 현실도피적인 복식으로 변모되어 여성복의 혁신을 이루었다.

③ 여성 패션의 기존의 전통질서를 파괴하는 다양한 현상으로서 속옷을 겉옷화하거나, 디테일의 장식을 전혀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고, 또는 엉뚱한 소재를 복식의 한 부분으로 전위시켜 표현하는 기법은 환상적 표현주의의 한 특성인 변용과 전위에 근거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입체파적 표현주의는 복식형태의 변형과 왜곡이라는 조형기법상의 변화를 통해 구조주의적 의상을 낳게 하였다. 구조주의적 의상은 아폴론적 성향과 디오니소스적 성향, 즉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양면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합리성을 상징하는 기하학적 형태는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는 과장되고 왜곡된 외형을 가져오게 하였다.

① 구조주의적 의상은 기하학적 형태의 혼합에서 오는 강렬한 표현성과 대담한 커팅기법, 그리고 다양한 색채와 선의 변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특성은 형태의 '해체와 재조직'이라는 입체파적 표현주의의 회화 형식을 빌어 의상에 그로테스크한 특성을 부여해 주었다.

② 역동적인 색채는 미국취향이나 전통주의에 기반을 둔 다양한 복식경향에서 현란한 원색들이 이루는 강한 색채의 대비에서도 나타나며, 흑과 백 또는 다양한 색조들의 대비에 의해 현대의 속도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반영물로서, 다양한 운동감을 전달해준다. 이후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시각적 원천이 되어 특히 문양에 다수 나타났다.

③ 팔라주 기법은 전통적으로 복식 소재에 쓰여 온 재질에 비닐, 금속, 생활용품, 유리 등 이질적인 소재를 혼합 사용함으로써 고전적이고 고상한 요소에 전위적인 요소를 결합시키는 '소재의 왜곡'과 문자, 형상, 기호등을 이용하여 환상성을 자아내는 뼈때에 꼴레가 있으며, 보는 이의 심리를 자극하는 트럼프 로일등이 있다. 이러한 표현 형태는 의외성과 유희성을 가져다주며, 추의 속성인 무질서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 20세기 초에서 중반까지 현대복식을 살펴본 결과 그중 일부 복식 가운데 그 정신성은 직관적 표현주의나 환상적 표현주의의 주제적 특성에서 비롯되었지만, 조형성은 입체파적 표현주의의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세 유형의 표현주의가 각기 독자적으로 영향을 미친 복식도 있으나, 이 세 유형이 정신성과 조형성에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듀프린, M. 임영방 譯, 「예술의 세 얼굴」, 중앙일보사, 1981
- 디디에 크롬바크 지음, 우종길 옮김, 「패션의 역사」, 도서출판 창, 1994.
- Lambert, Rosemary. 이석우 역, 「20세기 미술사」, 열화당, 1986.
- 로버트 린튼, 마순자 역, 「표현주의」, 열화당, 1988.
- 마순자, 「표현주의 회화에서의 인간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2.
- 변중하, “샤갈의 사상과 작품”, 「서양미술전집」 제22권, 한국일보사, 1972.
- Bullock, Allan. 홍동선 역, 「서양의 휴머니즘 전통」, 범양사, 1989.
- 아놀드 하우저, 「예술과 사회」, 기린원, 1992.
- 안소연, “창 뒤뮈페의 반문화 예술론”, 이화현대미술연구회, 「현대미술논집」 제2집, 1992.
- 양희석, 「예술철학」, 자유문고, 1988.
- 채금석, “Feminism이 현대여성복식에 미친 영향”, 국립창원대학교 논문집, 1993.
- Anfam, David, 「Abstract Expressionism」, London : Thames and Hudson, 1990.
- Appollonnio, Umbro, 「Expressionism-McGraw Encyclopedia of Western Art」, Vol. V, N.Y. : McGraw-Hill Book Company, 1961.
- Arnason, H.H., 「History of Modern Art」, New York : Harry N. Abrams Inc, 1981.
- Bakst, Leon, 「Esquisses de Decors et de Costumes Arts Graphiques peintures」, L ningard : Aurora, 1986.
- Bond, David, 「Twentieth Century Fashion」, British : Guinness, 1992.
- Boswell, Thom, 「The Costume Maker's Art」, New York : Lark Books. 1988.
- Bouisset, Maiten, 「Les Lithographies du Sonia Delaunay」 xxe sicle, vol xxxl, No.32, Paris, 1969.
- Buchheim, Lothar-Gunther, 「Die Kunstlergemeinschaft Bruke」, Feldafing Buchheim, 1956.
- Carnegy, Vicky,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Facts on File, N.Y. Oxford, Sydney,
- Chadwick, Whitney, 「Women Artist and The Surrealist Movement」, N.Y. : Thames and Hudson, 1985.
- Connkie, Yvonne, 「Fashion of a Decade : 1960s」, New York : Facts on File, 1990.
- Contini, Mila, 「Fashion : from Ancient

- Egypt to the Present Day」, New York : Crescent, 1965.
- Cosgrove, S., 「The Zoot Suit and Style Welfare」 in A. Mc Robbie, Zoot Suit and Second-hand Dresses, Basingstoke, Hampshire ; Mcmillan, 1989.
 - Craik, Jennifer, 「The Face of Fashion」,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1994.
 - Croce, Benedetto, and Douglas Ainslie, 「Aesthetic, As Science of Expression and General Linguistic」, New York : Noonday Press, 1963.
 - Davis, Fred, 「Fas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and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Demornex, Jaqueline, 「Balenciaga」, New York : Rizzol, 1989.
 - Diana de Marly, 「The History of Haute Couture, 1850~1950」, New York : Holes & Meier Publishers, Inc, 1980.
 - Dietmar Elger, 「Expressionism」, K In : Benedikt Taschen Verlag, 1991.
 - Dubuffet, Jean, 「Positioon Anticultwelle, L'Homme du Commun L'Ouvrage」, Paris : Gallimard, 1951.
 - Fabbri Editori, 「Roberto Capucci-L'Arte Nella Moda : Volume, Colore, Metodo」, Itaiy : 1990.
 - Forge, Andrew, 「Soutine」, London: Spring Books, 1965.
 - Fox-Genoves, E., 「Yves Saint Laurent's Peasant Revolution」, Marxist perspectives 1, 2 : 83, 1978.
 - Fraser, Kennedy, 「The Fashionable Mind : reflections on Fashion, 1970~1982」, Bostoni Godine, 1985.
 - _____, 「Jokes and Their Relation to the Unconscious 8」, 1905.
 - Furness, R. S., 「Expressionism」, 1973.
 - Gianni Versace, Omar Calabres, 「Versace Signature」, Abbeville Press Publishers, N. Y., London, Paris, 1991.
 - Glyn, Prudence, 「Skin to Skin : Eroticism in Dres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2.
 - Gordon, Donald, 「On the oringin of the world 'Expressionism」, 1966.
 - Gottdiener, Mark, 「Unisex Fashion and Gender Role Change」, Semiotie Scenel, No. 3(Sept), 1977.
 - Harrison, Charles(외 2인), 「Primitivism, Cubism, Abstraction : The Early Twentieth Century」, Yale Univ. Press, New Haven & London, 1993.
 - Hein, H., 「Play as an Aesthetic Concept」, Journal of Art and Aesthetic Concept, 1968.
 - Herbert, Barry, 「German Expressionism Die Br cke und Der Blaue Reiter」, Hippocrene Books Inc., 1983.
 - Hillier, Bevis, 「The Style of the Century 1900~1980」, London : The Herbert Press, 1983.
 - Jones, Mablen, 「Getting it on」, Abbeville Press Publishers, N.Y : 1987. Leymarie, Jean, 「CHANEL」, New York : Rizzoli, 1987.
 - Leonard G, Rubin, 「The World of Fashion」, New York : Harper & Row. 1976.
 - Madden, Thomas J., and Marc G. Weinberges, 「The Effect of Humos on Attention in Magarazine Advertisting」, Journal of Advertising, 11(3)
 - Mendes, Valerie, 「Pierre Cardin-Past, Present, Future」, London. Berlin : Dirk Nishen Publishing. 1990.
 - 「Modern Aesthetics : "On Historical Introduction」, London : George Aallen and Unwin The French Expressionism is categorized

- LTD, 1967.
- Polcari, Stephen, 「Abstract Expressionism and the Modern Experience」, New York : Cambridge, 1993.
 - Richard Martin & Harold Koda, 「The Historical Mode」, N.Y. : Rizzoli, 1989.
 - _____, 「Infra-Apparel」, New York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s, 1993.
 - Ross Clifford, 「Abstract Expressionism : Creators & Critics」, New York, 1990.
 - Rubined, William, 「Primitivism in 20th Century Art」, Vol.2.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84.
 - Smith, Meredith Etherington, 「Patou」, France : Deno l, 1984.
 - Steele, Valerie, 「Fashion and Eroticisim-Ideals of feminine beauty from the Victorian Era to the Jazz Age」, N.Y :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Decorative & Structural Design in Madeleine Vionnet’s Work”, 「Coustume」 No 25. 1991.
 - Tulloch, C., 「Rebel without a Pause : Black Street Style and Black Designers」 in J.Ash & E. Wilson(eds, Chick Thrills, London Pandora Press, 1992.
 - White, Palmer, 「Elsa Schiaparelli」, London : Aurum Press, 1986.
 - Willet, John, 「Expressionism」, London : Weidenfeld & Nicolson, 1970.
 - Wilson, Elizabeth, 「Adorned in Dreams : Fashion and Modernities」, London : Virago Press, 1985.
 - Yves Saint Laurent, 「Exotismes」, Mus es de Marseille-R union des Mus es Nationaux, 1994.
 - 平凡社, 「East Meets West—Issey Miyake

(三宅一生)の 發想と展開」, 東京, 1985.

- リ-テャ-ド. マテイソ, 「Fashion and Surrealism」, 東京 : Wacoal, 1987.

ABSTRACT

The Expressionism on the Modern Costume

Chae Keum Seok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Clothing major)

Graduate University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Expressionism took shape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so called as the time of change aand innovation which intermediated between the time of extreme prosperity and peace and the time of disruption.

This study is based on the wide sense of Expressionism out of various concepts of Expressionism.

The afore-mentioned phenomenon was emphasized all the more in the French Expressionism and it is the most important and substantial object in the Art to make a direct transference of emotion, feeling and thought and it could be regarded as one of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Expressionism. In Addition, the Expressionism produced “Aesthetics on Ugliness(Asthegik des H lichen)” in creating work of art. It was an expression of the Existentialism based on Humanism for modern people who lived at time of nihility and such artistic movement accepted polarity and ambivalence concepts claimed by Nietzsche

into three specific fields in accordance with thought and technique in the work of art and those are the Intuitional Expressionism, Cubistic Expressionism and Fantastic Expressionism. This study makes a close analysis of costume style trends on the basis of the categorized Expressionism enumerated as above.

The characteristics fo Intuitional Expressionism is that poverty and a sense of alienation dominated all society and thus the social reality brought a trend of social participation. This social reality effected significantly modern costume style and a reformative costume turned up at last. This reformative costume was classified into Gar onne look, Military look and Lingerie look by characteristics of style in order to make a close examinat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ality and the reformative structure.

Cubistic Expressionism effected costume forming and changed costume style through "Deformation" and "Distortion" in forming technique, and also it has developed geometrical style of costume, which could be symbolized by mechanism. And on the othe hand, this Cubistic Expressionism has emphasized exaggerated expression ability to produce rigid and stiff style of costume.

Fantastic Expressionism pursued basic artistic worth from the primitive and ethnic cus-

toms and accepted fantastic oriental Exoticism. This Fantastic Expressionism effected costume style of twentieth century and such designers as Lon Bakst, Paul Poiret, Elsa Schiaparelli adopted intensive primary color. It also applied "Depaysment" to modern costume style, which introduced avant-garde design to give an impact through destruction of the existing traditional concepts.

This study also analized seven major representative costume designers of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y are L on Bakst, Paul Poiret, Madeline Vionnet, Jean Patou, Gabriel Chanel and Elsa Schiaparelli. These designers deployed creative costume design work with peculiar expression technique based on the French Expressionism.

The costume study related to art history was so far made mostly to approach costume forming but only a few study is found to have approached idealistic background of art history in connection with creating costume. From that point of view, it is profoundly significant for this study to analize idealistic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ism and relationship between costume and Expressionism and to examine modern costume of twentieth century in conjunction with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spiritual sense of Expressionism.